

## 30년간 산을 깎아 물길 낸 노인



▲ 사진=ANI트위터

인도의 한 노인이 무려 30년 동안 산을 깎아 완성한 수로가 주민은 물론 야생동물의 젖줄이 되어 주고 있다.

12일 인도의 ANI통신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 중심부에서 80km 떨어진 시골 마을 코틸라와에 사는 라운기 부이안 할아버지는 30년 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수로를 내기 위해 깎고 땅을 팠다. 장마철마다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도 정작 농업용수가 부족해 애를 먹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정작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수로를 파는 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각자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소를 치면서 산을 깎고 땅을 팠다.” 고 밝혔다.

할아버지의 수로 파기는 최근 비로소 끝이 났다. 길이 3km의 수로가 생긴 덕에 이제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린 물을 연못으로 끌어와 마을 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홍수 걱정도 일부는 줄었다.

농축산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마을 주민들은 뒤늦게 할아버지의 노고를 치하했다. 파티 만지라는 이름의 주민은 “지난 30년간 할아버지 혼자서 깎아 만든 수로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젖줄이 될 것이며, 밭에 물을 댈 것이다. 할아버지는 마을 전체를 위해 애쓰셨다.” 며 고마워했다. 다른 주민 역시 “많은 주민이 수로의 혜택을 볼 것이다. 수로가 생긴 뒤에야 그 필요성을 알게 됐다.” 고 고마움을 표했다.

## ‘전 재산 아낌없는 기부’ 실천한 억만장자

미국의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척 피니(89)가 평생에 걸쳐 진행해온 기부 행진을 끝마쳤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피니는 14일 본인이 운영해온 자선재단 ‘에틀렉틴 필랜트로피’를 해체하고 남은 자산을 모두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0억 달러에 달한다.



▲ 전 재산 기부 후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전한 척 피니. 사진=유튜브(포브스) 영상 캡처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피니는 40여 년 동안 전 세계 자선단체와 대학 등에 자신이 평생 모든 돈을 기부했다. 자신이 수확한 코발트에 10억 달러를 포함해 교육 부문에 37억 달러, 건강관리 7억 달러, ‘오바마 헬스케어’ 지지 7,600만 달러, 사형제 폐지 운동 등 인권과 사회 변화 부문에 8억7,000만 달러 등 분야도 다양하다.

아일랜드계 가톨릭 이민자 집안 출신인 피니는 1960년 공항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며 큰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비행기를 탈 때는 이코노미클래스 좌석을 이용했고,

고급 시계 대신 1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썼다. 이 때문에 구두쇠 소리를 듣기도 했다.

1982년 재단을 설립한 뒤 줄곧 익명으로 자선 활동을 해온 그는 1997년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살아 있을 때 기부하기’ 운동을 시작했다. 앞서 그는 2012년 아내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200만 달러를 제외한 전 재산을 기부하겠

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부(富)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 는 그의 철학은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부부가 자선재단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니는 포브스에 “이제 빈털터리가 됐지만 이 이상 행복할 수 없다.” 며 “생전에 목표를 이루게 돼 매우 만족스럽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여행의 동반자들에게 감사하며 내가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할지 궁금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해봐라, 정말 좋다.’ ” 고 덧붙였다.

## 장애를 넘어선 사랑

희소 난치병으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 남성과 비장애 여성이 4년 열애 끝에 부부의 결실을 맺었다.

9일 NBC 투데이닷컴에 따르면 희소 난치병을 가진 세인 버코(28)와 그의 연인 한나 엘워드(25)는 지난 4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자택 뒤뜰에서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애초 가족과 함께 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간소하게 혼인 예식을 치렀다.

두 사람은 한 다큐멘터리의 실제 모델과 시청자로 처음 연을 맺었다. 신부는 “오래 전 남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메일을 보냈다. 유머 넘치는 글솜씨가 인상적이었다.” 고 추억했다.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영상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결국 사랑에 빠졌다.

신랑인 버코는 난치병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다.



▲ 사진=한나 엘워드 인스타그램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의 퇴행으로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영유아기에 발생하면 만 2세가 되기 전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버코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2살 때부터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 버코는 꾸준히 저술과 강연, SNS 활동을 펼치며 세상과 싸웠다. 장애인 권리 운동 단체도

이끌고 있다. 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을 공부한 엘워드 역시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의 사고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엘워드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장애인에게 성적 활동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 건 해로운 고정관념” 이라고 말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Since 1978

#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